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FERAL CHILD TRILOGY

가제 : 야생 소녀 3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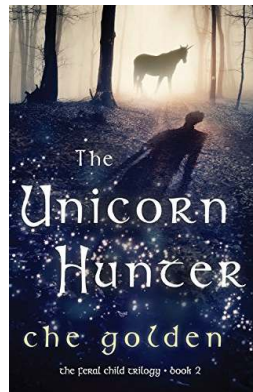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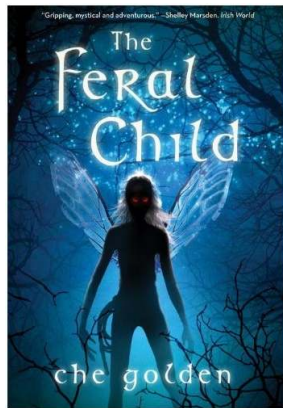
저자 : Che Golden

출판사: Quercus

발행일: 2014년 12월 9일(1권), 2015년 9월 8일(2권), 2015년 10월 6일(3권)

분량 : 256 페이지, 272 페이지(2권), 260 페이지(3권)

장르 : YA 소설



아일랜드의 시골 마을에서 살아가는 열세 살 소녀 메디가 그 지역에서 오랜 세월 전해오는 으스스한 괴담을 직접 경험하는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가 3부작으로 완성됐다. 오래된 성에 나타난 요정을 따라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간 아이들의 위태로운 여행에 켈트 족 신화가 녹아 있는 독특한 분위기의 소설이다.

1권. 야생 소녀(The Feral Child)

부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아일랜드의 조그마한 마을 블라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소녀 메디. 매디는 맨날 얼굴을 봐야 하는 사촌 대니도 싫고 시골 마을도 지겹기만 하다. 블라니 마을에는 요정이 출몰한다는 성이 한 채 우뚝 서 있는데, 관광객들만 찾아올 뿐 마을 사람들은 요정이 남의 아이를 바꿔 치기 해 간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며 발도 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왈가닥에 겁 없는 메디는 유난히 이것저것 짜증이 났던 만성절 축제 전날,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 성의 지하실로 기어 들어간다. 놀랍게도 그 지하에는 처음 보는 남자 아이가 있었는데, 어딘가 생김새도 말투도 이상하기만 했다. 과연 메디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밤늦은 시각, 성 지하실에서 봤던 그 소년이 길쭉한 귀에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며 메디가 사는 집 근처

에 나타나더니, 옆집 세 살 배기 꼬마 스티븐을 납치해버린 것이다. 눈깜짝할 사이에 스티븐을 데려가고 그 자리에 다른 아이를 몰래 놓고 가는 그 소년의 행동을 메디는 깜짝 놀라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메디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메디는 평소 그렇게 싫어하던 사촌 대니, 로이진과 함께 직접 스티븐을 구출해오기로 결심한다. 그러려면 성 지하실에 갔을 때 보았던, 요정의 세계로 넘어가는 ‘마법의 흑더미’ 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요정의 세계로 간 세 아이들은 심술궂은 요정들과 엘프들에게 시달리며 스티븐을 찾아 헤맨다. 과연 아기를 무사히 찾아서 데려올 수 있을까?

2권. 유니콘 사냥꾼(The Unicorn Hunter)

못된 요정들이 수시로 나타나는 성을 바라보며 늘 겁에 질려 살아가는 브라니 마을 사람들. 하지만 요정의 세계에 다녀온 메디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 세상과 요정 세상의 균형과 평화를 지켜주는 유니콘이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한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메디는 범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요정 세계 튀아다에서 뿔어져 나오기 시작한 교활하고 강력한 방해의 기운을 이겨내고, 메디는 얼굴도 모르는 유니콘 사냥꾼을 찾아낼 수 있을까? 대담하고 겁 없는 소녀 메디는 또 다시 신비한 세계로 모험을 떠난다.

3권. 까마귀 여왕(The Raven Queen)

오랜 균형을 깨고 인간의 세상을 전부 다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선포한 요정의 세계 튀아다. 메디와 두 사촌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무시무시한 전쟁에서 구하기 위해 요정 세력과 싸움을 치를 준비를 한다. 섬뜩한 힘을 가진 튀아다의 요정 지도자들을 이기려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튀아다 최고 통치자인 모리건까지 깨어나고, 메디는 이제 모든 것을 바쳐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지금까지 알아낸 요정과 튀아다에 관한 모든 지식을 끌어 모으고,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용기를 내야 한다. 사악하기로는 이길 존재가 없다는 모리건보다 한 수 앞서 나가려면, 그리고 두 세계가 끝이 보이지 않는 혼돈 속으로 빠지지 않게 하려면 결단이 필요하다. 선과 악, 두 강력한 힘이 대치되는 마지막 결전이 3권에서 펼쳐진다.

<저자 소개>

체 골든(Che Golden)은 실제로 위 시리즈의 배경이 된 아일랜드 브라니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글쓰기를 공부한 후 기자로 활동하면서 직접 잡지사를 운영하다가 현재는 영국에서 전업 작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 FIVE ELEMENTS
가제 : 다섯 가지 원소
저자 : Scott Ripley
출판사: Harper Collins
발행일: 2016년 가을
분량 : -
장르 : YA 소설



눈에 보이는 도시 바로 뒤에 놓인 악의 도시, 유일하게 그곳을 볼 수 있는 네 명의 아이들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필라델피아로 이사를 가게 된 게이브. 삼촌과 단둘이 사는 게이브는 12년 동안 벌써 일곱 번째로 새로운 도시에 가서 적응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소중한 친구들과 헤어져 또 다시 낯선 사람들과 사귀어야 하는 괴로운 생활이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미국 곳곳을 돌아다니는 것도 싫지만,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유난히 정이 많이 든 도시인데다 이곳에서 만난 릴리, 카즈, 브렛은 평생 곁에 두고 싶은 진짜 친구들이라는 확신이 들어 더욱 아쉽다. 게이브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형제처럼 붙어 다니면서 우정을 나눈 네 명은 어느 신기한 책에서 읽은 대로 ‘우정의 맹세’를 한다. 흠, 공기, 불, 물 네 가지 물질을 각자 하나씩 이름으로 정하고, 작은 유리판에 피를 몇 방울씩 떨어뜨린 하는 의식을 치른 것이다. 브렛은 물, 릴리는 공기, 카즈는 흠, 그리고 게이브는 불을 맡았다. 의식은 브렛이 진행을 맡아 짐짓 진지하게 거행되었다. 한 명씩 차례로 자신이 어떤 물질을 맡았는지 선언하고 네 사람의 결속이 절대 깨지지 않도록,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도록 해 달라고 다함께 빌었다. 웬지 유치하지만, 게이브는 아이들과 헤어지게 된 마당에 웬지 이런 의식을 치르니 위안을 얻은 기분이었다.

친구들과 헤어져 집에 돌아온 게이브는 삼촌이 원가로 분주한 모습을 보자마자 두려움과 분노가 치솟았다. 삼촌 역시 게이브를 보자 성큼 다가와 늦게까지 돌아다니다며 화를 내기 시작한다. 올림픽 수영 선수마냥 건장한 체격에 밝은 금발을 가진 덩치 큰 삼촌을 평소 누구보다 무서워하던 게이브지만, 이번 만은 가만히 잔소리나 들으며 혼나고 싶지가 않았다. 딱히 이유는 말해주지도 않고 늘 ‘위험’ 운운하는 삼촌에게, 게이브는 평생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친구들을 만났는데 삼촌 때문에 또 잃게 생겼다며 속에 맺힌 말들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삼촌이 귀가 따갑게 가르친 수많은 ‘생활규칙’ 중에는 절대 자제력을 잃으면 안 된다는 규칙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게이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처음으로 삼촌에게 괴로운 속마음을 토해낸 게이브는, 놀란 눈으로 모든 것이 게이브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삼촌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흠, 공기, 물, 지구, 그리고 마법... 사라진 삼촌을 찾아 악의 세력과 맞선 아이들의 모험

그런데 이사를 불과 며칠 앞두고 갑자기 삼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다. 그제야

게이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삼촌의 모든 행동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 과도한 이사, 그 어느 엄격한 가정보다도 가혹하게 지켜야 했던 생활 규칙들, 그것도 납득할 만한 근거도 없이 삼촌이 제멋대로 만든 것처럼 느껴지던 규칙들은 삼촌의 말처럼 정말 게이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체 무엇이 삼촌을 그토록 불안하게 만들었을까? 그 정체는 바로 ‘불멸의 새벽’으로 불리는 집단이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이상한 집단은 수백 년 동안 게이브의 가족을 대대로 쫓아다니며 잡아들이려 했다. 대체 왜 게이브네 가족이 표적이 된 걸까?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면에는 쌍둥이처럼 자리한 또 하나의 세상, 거대한 어둠과 악의 세상인 아카디아가 존재한다. ‘불멸의 새벽’은 이 세상을 집어 삼켜 아카디아만이 존재하기를 바라는 무서운 집단이고, 그 일에 게이브네 가족들이 관련이 있었다. 그래서 삼촌은 이들이 게이브를 찾아내지 못하게 막아야 했다. 삼촌의 행방과 비밀이 드러나면서, 게이브와 친구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마법의 힘을 알게 된다. 악몽처럼 끔찍한 존재들, 흑마술, 상상 그 이상의 악이 존재하는 세계, 아카디아로부터 세상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이 끔찍한 악의 힘을 물리칠 수 있는 더 큰 힘을 찾아야 한다.

본능과 분노를 상징하는 불, 깊은 생각과 따뜻한 마음을 상징하는 공기, 비밀스럽고 교활한 물, 느리지만 변함없는 흙, 네 가지 물질과 다섯 번째 요소이자 죽음을 의미하는 마법, 다섯 가지 요소를 대표하는 네 명의 아이들이 샌프란시스코를 무대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세상을 상대로 펼치는 모험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총 3부작 시리즈로 구성되며, 2권 ‘그림자 도시(The Shadow City)’는 2017년 여름에, 3권은 2018년 겨울에 각각 출간될 예정이다.

<저자 소개>

스콧 리블리(Scott Repley)는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해군 항해사이자 포격수로 복무했다. 제대 후 연기를 공부하고 미국 전역과 러시아, 대만 등 세계 각지를 돌며 연극 무대에 올랐다. TV, 영화, 광고에도 출연하며 연기자로 활동 중이다. 현재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연기와 연출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도 전문 연기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